

동양선교교회 성도여러분에게 드리는 19번째 편지

투표용지 빼돌리고 이미 표시한 투표용지 배부 자유당 때의 부정선거보다 더한 공동회의

지난 6월 26일 주일에 열렸던 박형은 목사 담임목사청빙을 위한 임시공동회의는 불법, 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실로 천인 공로할 비탄과 비극의 회의였습니다.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채홍인 장로로 구성된 우리 교회 당회(이세훈 장로는 노수정 장로가 이미 사표를 제출, 더 이상 시무장로가 아니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며 박환장로는 당회원들과 다툼 뒤 이미 오래전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는 이날 공동회의에서 그들이 불법으로 장로로 장립시킨 이승래와 최형수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100여장씩 투표용지를 빼돌려 찬성표를 만든 뒤 교인들에게 나눠주거나 투표봉투에 넣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교인들이 유출된 투표용지를 빼앗으려 하자 이영송 장로가 그 투표용지를 선수를 쳐 빼앗아 들고 달아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미 찬성으로 기표한 투표용지를 교인들에게 나눠주자 교인들이 문제의 투표용지를 들고 일어서 항의를 하는가하면 4부와 5부에는 250여명의 고등부 학생들을 동원해 투표토록 했으며 경찰을 숙여 동원, 공동회의를 예배중이며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고 숙여 잡아가도록 하는 등 이것이 어찌 일반 사회단체도 아닌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일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통곡하며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 할 따름입니다,

이날 공동총회는 아시는 바대로 1, 2, 3, 4, 5부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불법, 부정 투표를 하기위해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채홍인 장로 등으로 구성된 우리 교회 당회가 머리를 써서 만든 새로운 방법입니다. LA를 비롯한 전 미주 그리고 한국에서도 교인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예배 후에, 우리 교회의 경우 지난 40여 년 동안 3부 예배후에 공동총회를 열었습니다.

이승래가 최형수에게 투표용지 빼돌려 주고 최형수는 투표용지에 찬성표시 한 뒤 교인에 배포

4부 예배기 끝나고 개회를 선언하면서 이승래는 봉투 속에 있는 투표용지를 꺼낸 뒤 이 가운데 100여장을 빼내어 최형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최형수는 그 투표 용지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들고 총무부 쪽으로 갔으며 가는 동안에 볼펜으로 기표를 한 뒤 교인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먼 곳에서 확인한 라철삼 집사가 달려가 최형수 손에 든 투표용지를 뺏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임창웅과 랜디조, 박준오 집사가 달려들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몸싸움 하는 사이 이영송장로가 투표용지 들고 튀어 청빙위원장인 이영송장로가 부정투표 은폐에 나서다니.....

라철삼집사와 이들 집사들 간의 몸싸움이 진행되는 순간 소위 담임목사 청빙위원장인 이영송 장로가 뒤에서 튀어나와 최형수가 가지고 있던 투표용지를 들고 쏜살 같이 달아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떨어진 2장의 투표용지를 이선관 집사가 수거 했는데 2장 모두 이미 박형은 목사 청빙에 찬성하는 마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들 2장의 투표용지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승래와 최형수는 3부에서도 똑 같은 방법으로 투표용지를 빼돌려 봉투에 집어 넣었으며 이 때 이를 보고 수상하게 여긴 라철삼 집사가 4부에서 이를 확인, 덮친 것입니다.



(사진 설명) 최형수가 투표용지를 들고 나가고 있다. 그는 또 투표용지를 사찰에게 전달하지 않고 직접 개표요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최형수는 사찰이 아니어서 투표용지를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투표용지를 가진 것 자체가 불법이다.

최형수는 이 같은 방법 이외에 개표가 진행 중인 강단에 올라가 직접 가지고 간 투표용지를 두고 왔으며 내려올 때는 반대표를 슬쩍 가지고 내려와 폐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최형수는 개표와 투표를 관장하는 사찰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정입니다. 투표용지는 사찰들만이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며 수거 할 수 있습니다.

또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접지 아니하고 편 채 그것도 자기 손안에 들고 다니는 것도 불법입니다. 밀폐된 투표함에 본인들이 직접 넣든지 아니면 최소한 헌금주머니를 들고 다니면서 수거해야 비밀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그리고 공정한 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손에 들고 다니다가 개표내용을 확인 한 뒤 없애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바로 이날 투표장에서 있었습니다.



(사진 설명) 이영덕권사가 이미 표기 된 투표용지를 정행식 집사에게 주었고 이를 항의하자 투표용지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영덕 권사 미리 청빙찬성 표시한 투표용지 나눠 줬 정행식 잡사가 항의하자 용지 잘못 주었다고 변명

2부 공동회의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정행식 집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받아 본 투표용지에 이미 표시를 해 둔 투표용지 즉 이미 투표가 끝난 투표용지였습니다. 정 집사는 이 투표용지를 들고 방금 전 투표용지를 직접 나눠준 이영덕 권사에게 항의를 했으나 답변 없이 그 투표용지를 빼앗으려 했으며 이 때문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영덕 권사는 나중에 한 손에 새로운 투표용지를 다른 손에는 이미 투표한 용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투표가 끝난 용지를 잘못 주었다고 공색한 변명을 늘어놓아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권사까지도 거짓말에, 불법, 부정투표를 옹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통째로 썩은 것입니다.

이효성 교육부장, 200여명의 고등부학생들 동원 투표 한번 더 투표하라는 주문에 젊은이 답게 거절 창피당해

4부 예배 때에는 200여명의 고등부 학생들이 교육담당자라는 지난번에 불법으로 장로 안수를 받은 이효성의 인솔로 입장, 한쪽에 몰려 앉아 있다가 투표를 했습니다. 개표가 끝난 뒤 이들은 깔깔대고 웃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설명하는 웃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투표를 하면서 장난 끼로 10여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표는 5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애들이 웃을 일”이 아니라 소가 웃어야 할 슬픈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동원했던 학생들에게 5부에 다시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학생들이 “어떻게 두 번이나 투표를 합니까?”하면서 거절, 그들의 불법, 부정투표는 순박한 고등부 학생들에 의해 좌절 된 것입니다.

박형은 목사, 부정투표, 경찰동원되면 수락않겠다 약속 박목사의 약속,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 거의 없어

텍사스에 있는 박형은 목사님은 정영식 장로와 차귀동 집사와 현지에서 만난 자리에서 “부정투표가 진행되고 경찰이 동원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나는 청빙을 수락하지 않겠습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박목사님은 그런 사실을 청빙위원장인 이영송 장로에게 전화로 알려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공동총회는 그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박목사님은 이제 결판 할 차례입니다. 목사님으로서 신도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뒤 엮을 것인지 우리는 조용히 지켜볼 것입니다.

공정하게 투표 한다면 청빙결과에 승복하겠다 답변없이 일반사회보다 더한 불법, 부정선거치뤼

이날 투표에 앞서 금요일(24일)에 열린 제직회에서 우리는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양보하겠다”고 밝힌 뒤, 단 한 가지, 투표를 공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개표 종사원(사찰)가운데 몇 명이라도 우리들을 임명하고 1인 1표의 공정한 투표 그리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개표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한 두 명이라도 찬반으로 나누어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시간이 길지 않도록 3분이나 5분 등 시간제한을 두어도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요구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만일 그렇게 공정한 투표를 해서 박형은목사가 표를 얻어 청빙된다면 우리는 깨끗히 이에 승복하겠다고 우리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채홍인 장로 등 당회원들은 아무런 언질도 답변도 없이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공동회의 때 단 한차례의 발언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 강준민 목사가 전권을 요구, 당회를 해산했던 임시 공동총회에서도 일체의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때 현재의 장로들은 단 한 마디도 못하다가 마침 이를 듣고 일어난 라철삼 집사의 발언 요구에 힘입어 겨우 뒤따라 다니며 발언권을 주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번에는 자기들이 발언권을 주지 않고 교인들의 요구를 묵살 한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보다 더 야비한 방법으로 그리고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시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논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만 둘 리 없다는 확신보다는 스스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형제가 되길 빌겠습니다.

동양선교교회 회복 대책위원회